

유통 불합리 등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



▲ 천강균 위원장

- 1971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75 일본 애계원 산란계농장 연수
- 1994 서울경기양계농협(현 한국양계농협) 이사
- 1998 서울경기양계농협 용인집하장 운영위원장
- 1999 본회 채란분과위원장
- 2008 본회 채란분과위원장 및 부회장

그년 본회 18대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산란계분야에서는 천강균 사장이 채란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1999년 채란분과위원장을 맡아 업계를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채란업의 제 2의 부흥기를 준비하고 있는 천강균 위원장을 만나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위기를 기회로

천강균 위원장은 현재 용인에서 75,000수 규모의 채란업을 영위하고 있다. 과거 서울 경기양계축협 용인집하장을 운영해 오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채란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채란업이 나아갈 방향을 쉽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강균 위원장은 최근 AI 발생 등 계란의 과잉생산 등 채란업계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더욱이 사료 및 유류 등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큰 부담이 되

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운영

천 위원장은 채란업계의 당면과제는 자조금 사업을 포함해 계란유통 문제, 안정된 계란생산 등이 산재해 있지만 분과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회 때마다 제기되었던 난가문제는 난가정보위원들끼리 사전에 조율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위원들이 회의 참여 전에 현안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의석상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채란업 현안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가에게 반드시 필요할 경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마무리를 지어갈 예정이다.

큰 규모 농가들의 협회참여 유도

채란업은 과거에 비해 사육규모와 사양관리 방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장들의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1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약 70여 농가로 증가하였으며, 사육수수는 1,500만수 규모로 전체 사육수수의 33%를 차지할 만큼 비중과 역할이 커진 만큼 업계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참여 없이는 채란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천 위원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이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 의무 자조금은 물론 지난해 3억원을 조성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온 임

의자조금에 대해 각 도지회 및 지부의 협조는 물론 지역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우리 채란산업은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란유통 불합리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

과거 난가정보위원으로 활약하면서 가격DC 등 유통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난가현실화 등을 시행했던 경험에 미루어볼 때 계란 유통 및 가격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협회에서 신정부에 건의한 내용처럼 농림부 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가격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에 위배되지 않고 상인주도의 가격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활한 노계처리를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계알선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계알선사업은 중간 유통상인의 개입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던 것에서 협회에서 중간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350원의 고정단가를 정해 이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일반유통으로 옮겨갈 소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처럼 노계와 중추를 맞바꾸는 시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천 위원장은 최근 AI발생 상황과 관련해 농가는 '차단방역'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는 정확한 감염원을 규명해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강균 위원장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 보다 현실에 맞는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이끌어 갈 뜻을 밝혔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